

초등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교육적 의미 탐구

Exploring on the Educational Aalues in After School Sports-leisure Activity

고문수*, 김재운**

경희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Moon-Soo Ko(moon9926101@hanmail.net)*, Chae-Woon Kim(cwkim1@ginue.ac.kr)**

요약

본 연구는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현장의 교사가 방과 후 스포츠여가 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토대로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탐구하는데 그 목적 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1년 수도권 소재의 Y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5학년 학생 3명과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 3명 그리고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 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3명의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는 심층면담을 통해 수 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radley(1979)가 제안한 영역 분석과 분류 분석을 토대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교육적 의미는 신체활동의 다양한 가치 체험 [학생들의 건강 및 체력의 향상, 학교생활의 적극성 강화, 신체적 자기개념 및 효능감 증진], 학교체육과 생활체육과의 만남, 교육복지 실현: 교육격차의 해소, 체육문화에의 입문 등이 도출되었다.

■ 중심어 : | 방과 후 | 교육적 의미 | 스포츠여가활동 | 체육문화 |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was to exploring on the educational values in after school physical programs. The participants were students in grades 5 (3), after school parents who are interested in sports activities (3), after school sports activities led by experienced teachers in three of were selected as study participant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collected data were transcribed and coded for domain analysis, classification analysis. The analysis of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fter school physical activities, educational significance of the various values of physical activity experiences, meeting with school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educational welfare: the elimination of educational disparities, physical culture, introductory appeared.

■ keyword : | After School | Educational Values | Sports-leisure Activity | Physical Culture |

I. 서론

초등학생들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다. 초등학생은 성인과 다르다. 초등교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대개

7~12세 사이의 학생들이다. 이 시기는 초등학생이 아 동기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5~6세의 유치원 아동과 12 세의 6학년 학생은 여러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시기에는 심동적·사회적·정서적 발달의 변화가

왕성하다[1]. 또한, 초등학생들은 교과내용 중 체육교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학생들이 체육교과를 선호하는 이유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학교체육이 학생들에게 신체활동의 가치를 제공하는 측면을 고려해볼 때, 최근 학교교육에서 경험하는 학생들의 불안한 감정이나 학업성취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의 요인과 양상들은 신체활동을 통해 배워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초등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통해 느끼는 신체활동의 교육 가치로는 건강 및 체력의 향상, 도전감과 자신감의 함양, 웃음의 정서가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신체활동은 크게 정과 체육으로서의 체육수업과 방과 후 체육활동 등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본 연구는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방과 후 스포츠 여가활동 또한 학교체육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교육적 측면에서 유용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시작되었다.

본 연구자는 방과 후 체육활동이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공교육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이는 방과 후 학교의 대두 배경을 살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는 학교교육에서 드러나고 있는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가운데 ‘공교육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것과 교육복지를 구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발문을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이들의 문제들에 대해 반성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에서 드러나고 있는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왔지만 대부분의 교육활동이 주지교과 위주의 학습내용으로만 일관하였기 때문에 교육적 혜택 측면에서 지역의 특성이나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중 방과 후 학교가 대두된 것은 학습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위에서 제시된 교육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시도들은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을 보면 교과교육에서 드러나고 있던 교육 격차 못지않은 잔존 현상이 그대로 남아있다. 예컨대, 방과 후 스포츠교육은 저렴한 비용의 활용이라는 방과 후 교육활동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제시된 체육활동은 적은 비용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을 소비하는 신체활동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근접하기 어려운 환경적 제약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과 후 학교를 통해 교육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영역들은 학생들이 교과내용보다는 사교육을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는 신체활동의 내용들에 대해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 내용들이 학습자의 요구조건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스포츠여가활동의 욕구를 그동안 얼마만큼 고려해왔는가?’라는 점도 검토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초·중등학교에서 다양한 종목과 활동내용들을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10]. 이러한 측면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활동 내용을 편성한 교육적 사례에 해당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신체활동을 선택하여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학습자 수준에서 가르침(teaching by invitation)을 제공받을 수 있고,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폭넓은 체육의 문화에 입문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나갈 것이다.

과거에 학교에서 운영되었던 학생체력검사 대신에 최근 학교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PAPS: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체육교과가 독립교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바로 신체활동과 스포츠여가활동에 대한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피력하고 있음을 제안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연구

들을 검토해 보면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 학생들의 생활 적응이나 만족도 및 사회성 촉진을 위한 연구[4][9], 학생들의 신체적 자기개념과 학교생활 적응 및 자기효능감 연구[11],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13][14],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과 체력의 관계성 검토[6]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방과 후 교육활동이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에 도움이 되고,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렇다면 사회성 함양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건강 및 체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을 실제로 운영하는 담당교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영향이나 효과가 있다는 형태의 결과였다면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무슨 영향이 있는지 또는 무슨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깊이 있는 생각들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진다면 연구 참여자들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교육적 예방과 처방이 필요한지 등에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이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교육적 의미가 무엇인지,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가치실천 방안을 탐색해나가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학생들이 학교교육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갈등 내용 [자살, 학교폭력, 따돌림 등] 을 경험하고 있는 문제나 학생들이 체격은 좋아졌으나 체력의 약화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교육적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

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현장의 교사가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탐색하여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2011년 수도권 소재의 Y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5학년 학생 3명,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 3명,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 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3명의 학생은 모두 남학생으로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으로 디스크 골프, 축구, 음악줄넘기에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 도서도우미이고, 방과 후 교육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 참여교사는 모두 5학년 교사로 유소영 교사는 음악줄넘기를 담당하고 있고, 고수선 교사는 디스크 골프를, 김하일 교사는 축구를 지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글의 흐름과 문맥의 적합성에 따라 연구 참여자 또는 학생으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2. 자료수집

심층면담을 위한 질문지는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 작성한 반 구조화된 면담질문지를 활용하였고, 학년 말에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2회, 20~30분씩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 종료 직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추가면담이 필요한 내용들은 e-mail과 전화로 보충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편의를 위하여 강좌가 진행되는 학교의 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시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을 이용하여 녹취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사하여 분석과 해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심층면담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는 곧바로 전사하여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심층면담으로 수집된 자료는 Spradley(1979)가 제안한 자료 분석방법 중 영역 분석과 분류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수업일지와 심층면담 자료를 반복해서 정독하면서 방과 후 학교 스포츠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가치 실천을 위한 방향과 관련된 주요 개념을 도출한 후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 범주화하였다. 수집한 자료와 분석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도록 하여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스포츠교육학 전공 박사학위자 2명에게 연구 전반에 관하여 검토를 받았다. 이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III.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교육적 의미

학교체육은 건강 활동, 도전 활동, 경쟁 활동, 표현 활동, 여가 활동을 교육내용으로 하여 올바른 건강 생활 습관의 형성, 기초 체력의 향상, 운동의 기본 능력과 표현 능력의 향상, 바람직한 운동 질서 및 규범의 형성, 활기찬 여가 생활 태도의 형성을 위한 교육 목적을 설정함으로써 '신체활동 가치의 기초·심화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5]. 이처럼 체육은 학생들의 신체와 인지 및 정서의 통합을 통해 인간이 하나로 완전하게 완성되는 객체를 지향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인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서도 학교체육에서 지향하는 목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로 하여금 심동적·인지적·정서적인 측면에서 교육적 가치가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과 후 교육활동은 학생들에게 체육교육의 철학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변화하는 인간의 통합을 지향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교육적 의미로 신체활동의 다양한 가치 체험, 학교체육과 생활체육과의 만남, 교육복지 실현: 교육격차의 해소, 체육문화에의 입문 등을 탐색하였다.

1. 신체활동의 다양한 가치 체험

방과 후 교육활동은 학생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었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건강과 체력 향상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었고, 긍정적 측면의 사회성을 함양해 나갔다. 특히, 신체적 자기개념 및 자아효능감 증진이 나타난 것은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인식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볼 때,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최근 학교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및 부정적 정서 표출 등의 반사회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교육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건강 및 체력의 향상

일반적으로 학교의 스포츠여가활동에서 비활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낮은 체력수준을 지니고 있는 것은 과제중이나 비만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16][19][20]. 우리는 건강의 유무에 따라 기대여명을 길게 잡을 수도 있고, 짧게 잡을 수도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실천하는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과 체력이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사들도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평소보다 생활 태도가 좋아지고 있고, 교실 수업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언급하였다.

최근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학생들에게 신체 활동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유소영 교사).

2) 학교생활의 적극성 강화

학생들은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가운데 정서를 고양하고, 이를 긍정적인 정서로 전환하여 자신의 신체 리듬을 유익하게 만들어 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출발점이 되었다.

학생들이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전에는 체육수업에도 소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 참여하고 나서부터 체육수업은 물론 교실수업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학생들은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서 디스크 골프에 참여하고 나서부터는 체육수업에서 던지기를 할 때, 플라잉디스크를 활용한 수업에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는 이전에 경험한 내용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수업 참여수준을 가져오게 된다는 고문수[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체육수업에서 플라잉디스크 던지기를 하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방과 후 체육에서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가장 잘 한다고 선생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다른 애들이 어떻게 던지느냐고 자꾸 물어봐서 귀찮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좋았던 것 같아요. (김하늘 학생).

무엇보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만드는데 유용한 측면이 드러나고 있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서도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 참여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7][12].

3) 신체적 자기개념 및 효능감 증진

학생들은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신체적 자기개념의 형성과 학교적응 및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무엇보다 자신에

게 주어진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높은 기대를 피력하였다. 예전에는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면 조금만 힘들어도 쉬거나 걷기를 하던 학생들이 음악줄넘기를 하면서부터 동작도 암기하고, 음악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줄넘기를 하면서 자신감을 함양할 수 있었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이 좋은 점은 운동하면서 재미도 있고,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면 더욱 더 친해 질 수도 있고, 친구들과 사귄 수도 있습니다. 참을성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해요. (유소영 교사).

수업시간에 포기하는 애들이 줄어든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체육시간에 조금만 힘들어도 쉬던 학생들이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방과 후 체육을 해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애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이 좋은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다만,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심신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방과 후 체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하일 교사).

정지혜·정혜리[11]의 연구는 초등 학교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구결과를 보면, 중학교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이 신체적 자기개념 [외모, 건강, 규칙적 운동, 근력, 스포츠자신감] 과 학교적응 및 자기효능감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밖의 환경보다는 학교 내에서의 방과 후 교육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건강한 심신을 갖춘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 스스로 자신에게 알맞은 소질을 발견하고 특성을 계발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스포츠 활동을 선택하여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

류태호·김병준·이병준[3]의 성과 운동참가수준에 따른 중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을 규명한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의 빈도가 높고

운동부 활동 경험이 있으면 신체적 자기개념도 보다 바람직한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포내숙·정상훈[13]은 중학생의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과 정서 차이의 연구에서 참가 빈도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은 유능감, 건강, 신체활동, 자기존중감, 지구력, 근력 등 신체 전반에서 참여빈도가 많은 집단이 적은 집단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볼 때, 초등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하면서 자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2. 학교체육과 생활체육과의 만남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은 변화를 지향해나가는 원동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학교수업에서도 학생들은 경험과 비 경험 사이에서 수업내용의 이해 부분을 보면 상당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1]. 학교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수업의 내용을 경험했을 때와 경험하지 않았을 때의 수업태도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이전에 경험을 했던 내용은 서툴더라도 참여를 하게 되지만 경험을 하지 않은 내용이 난이도가 높을 경우에는 참여에 부정적인 태도나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도 생활체육의 경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이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및 사회성 함양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방과 후 체육활동의 내용이 생활체육의 내용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도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이 생활체육과의 만남을 유기적으로 구성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내용으로는 생활체육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자유롭고 즐겁게 즐기고 활동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겠습니다(유소영 교사).

어렸을 때부터 신체활동을 해야 어른이 되어서도 자

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 요즘 들어가는 비만학생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자연스럽게 배우지 못한 것은 나이 들어서도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고수선 교사).

초등에서 학습한 신체활동이 중등 시절에도 연계되면 좋을 것 같고, 체육 시간에 할 수 없는 골프, 유도, 수영 등의 전문 분야도 시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 프로그램에서 운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김하일 교사)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생활체육 활동과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여가 생활이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이나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습관은 제 2의 천성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익힌 체육 활동들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생활세계로 체화되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이나 생활체육 등에 참여하게 되고 신체적 활동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교육적 가치가 피력된바 있다[4][6][8][9][11][13][14].

3. 교육복지 실현: 교육격차의 해소

무엇보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장점은 수강료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진행된 Y초등학교에서는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약 5%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인근의 사회체육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개설 강좌도 인근 시설에 없는 강좌들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참여 유인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좌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은 것은 추후 개선의 여지로 남아있다.

최근 초등학생들의 비만이 사회 현상으로 등장하면서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스포츠여가활동이 교육격차의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서 교육적 가치와 순수성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가 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수강료 부담이 적어서 좋습니다. 사교육 기관은 수강료뿐만 아니라 기타 구입해야 하는 것이 많아서 비용부담이 많아요. 말 그대로 사교육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와 많이 다릅니다. 학교가 공교육을 위주로 한다면 사교육 기관은 사적인 영리위주의 사업이 강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교육의 대표기관인 학교가 교육적인 부분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차미현 학부모).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교육에 공교육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현재 각 학교별로 운영되는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 프로그램은 비용이 저렴합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측면입니다(김수정 학부모).

4. 체육문화에의 입문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체육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체육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할 것을 강조하였다. “체육과는 신체활동을 통하여 자신 및 세계를 이해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바람직한 품성과 사회성을 갖추며 체육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향양하는 교과이다.”라고 명시하였다[5].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체육이 사설 체육기관과는 달리 스포츠 종목의 기능을 배우고 움직임 욕구를 해소하는 차원을 벗어나 체육이라는 전통문화를 통해 자신과 주변의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품성과 사회성을 갖추며 체육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방과 후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5]. 예컨대, “단위 학교에서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할 때, 체육과 교육과

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영역 중에서 학교 특성을 고려한 신체활동을 학생들에게 한 개 이상을 선택하여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육을 담당하는 체육지도 교사나 학교 관계자 및 체육행정가들도 학교체육이 체육 문화를 진흥하는 차원에서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개인의 여가활동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학생들이 심동적·인지적·정서적 건강을 통해 체육문화에 바르게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17].

체육을 지도하는 교사의 관심과 노력여하에 따라 체육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 부분이 부족해요. 특히, 체육을 지도할 때에는 체육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김하일 교사).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양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는 다양한 신체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과 후 신체활동 프로그램들을 선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고수선 교사).

IV. 결론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학생들에게 심동적·인지적·정서적인 측면에서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학생들에게 건강 및 체력의 향상, 학교생활의 적극성 강화, 신체적 자기개념 및 효능감 증진 등 신체활동의 다양한 가치를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생활 체육의 경험에 도움을 주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셋째,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교육격차의 해소와 같이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체육이라는 전문분야를 통해 자신 및 세계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품성과 사회성을 갖추도록 하며 체육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학생들에게 건전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체육이 생활체육과 연계되는 가운데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학교상황은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보다는 상위학교의 입시와 관련된 부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과 바른 인성의 함양을 위해서는 이를 법적·제도적 방안으로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학생들에게 스포츠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건전한 체육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활동 내용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학생들이 대학학원 시 방과 후 스포츠여가활동의 내용을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교육적 가치를 드러내는 활동들이 사장되지 않고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강제성을 동반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건강한 삶과 긍정적인 문화의 공유를 위해서는 국가사회적인 차원의 관심과 지원책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고문수, *초등체육수업론*, 파주: 교육과학사, 2012.
- [2] 나명훈, "중등학생의 체육 특기 적성 교육활동 참여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6권, 제3호, pp.675-682, 2005.
- [3] 류태호, 김병준, 이병준, "성과 운동참가수준에 따른 중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Vol.9, No.1, pp.63-78, 2002.
- [4] 박정화, "아동의 방과 후 스포츠 종목과 참여 수준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48권, 제5호, pp.535-545, 2009.
- [5] 유정애, "초·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해설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CRC 2007-18*, 2007.
- [6] 이경관, 백성익, 박태섭, 심재희, "방과 후 체육활동이 정신지체 청소년의 체력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1호, pp.795-802, 2007.
- [7] 이수형, *중학생의 생활체육 참여가 신체적 자아개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2006.
- [8] 이승희,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멘토링 경험과 운동성취에 대한 인과모형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2권, 제2호, pp.95-114, 2009.
- [9] 이승희, "방과 후 체육활동참가 중학생의 참가동기와 스포츠태도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49권 제6호, pp.103-113, 2010.
- [10] 이용식, "즐거운 일본의 방과 후 체육활동", *국민체육*, 제21권, p.10, 2005.
- [11] 정지혜, 정혜리, "방과 후 학교교육활동이 중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지*, 제24권, pp.17-38, 2008.
- [12] 최대식, *남자 중학생의 생활체육활동 참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울산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2001.
- [13] 표내숙, 정상훈, "중학생의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과 정서의 차이", *교사교육연구*, 제47권, 제2호, pp.221-243, 2008.
- [14] 표내숙, 정상훈, 박철용, "중학생의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가 신체적 자기개념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48권, 제3호, pp.359-374, 2009.
- [15] J. P. Spradley,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enhart & Winston. 1979. 박종흡 역, "문화기술적 면접법", 서울:시그마프레스

스. 2003.

- [16] American Obesity Association, "Obesity in Youth" Washington, DC: Auther," Rrrieved September, Vol.18, 2006, from http://www.obesity.org/subs/fastfacts/obesity_youth.shtml. 2005.
- [17] R. Hyatt, "Intramural Sport," Saint Louis : The C. V. Mosby co. 1977.
- [18] M. M. Smyth and H. Anderson, "Coping with clumsiness in the school playground: Social and physical play in children with coordination impairment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Vol.18, pp.389-413, 2000.
- [19] Ulrich, "Perceptions of Physical competence, motor competence, and participation in organised sport. Their interrelationships in young children," *Research Quarterly for Excise and Sports*, Vol.58, pp.57-67, 1987.
- [20] G. J. Welk and S. N. Blair, "Physical activity protects against the health risks of obesity," Bloomington, IN: President's Council on Physical Fitness and Sports, 2000.

김 재 운(Chae-Woon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체육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스포츠사회학, 여가교육

저 자 소 개

고 문 수(Moon-Soo Ko)

정회원



- 2006년 8월 : 인천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박사)
- 1998년 3월 ~ 2012년 5월 : 인천 작전초등학교, 인천계산초등학교, 인천용일초등학교 수석교사,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관심분야> : 스포츠교육학,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